

“교정공무원의 어려움, 청년이 직접 챙긴다”

- 법무부 ·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 교정 현장 합동 방문
- 교정공무원 업무 직접 체험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은 8월 31일(월)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긴밀히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청년의 시각에서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 부처의 청년자문단이 함께 추진한 첫 합동 현장 방문이다.

이날 청년자문단은 수용동 · 취사장 · 소망의 집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수용동 보안 절차, 수용자 관리,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교정공무원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폈다.

이어서 열린 교정 정책간담회에는 청년 교정공무원부터 다양한 직급의 교정 공무원이 참석해 교대 · 야간 근무에 따른 부담, 열악한 수용 환경 등 교정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을 청년자문단에 전달했다.

남창형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이번 방문으로 교정본부와 각 교도소가 겪어온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며, “교정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교정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시각으로 꼼꼼히 챙기겠다” 고 밝혔다.

양 부처 2030청년자문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교정현장 및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심경보 (02-2110-3111)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손장혁 (02-2110-3110)
	장관실	담당자	청년보좌역	남창형 (02-2110-3304)

